



“전남권 교통 SOC 대폭 확충 지역발전 가속화”

●尹대통령, 전남도청서 20번째 ‘민생토론회’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완도-강진 고속도로 지원 재확인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추진...남해안권 접근성 개선
미래산업 육성, 지역별 농·축·수산업 지원 방침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 생활권 확장
장과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
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
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
설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km 구간에 약 2조5천억원을 투입해 독일
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를 건설해 자율
형 주행차 테스트베드로 쓰겠다는 구상
은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울러 그는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
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예
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

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인프라 혁
신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을 거론
하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천억원 규
모의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
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 장비 국산
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함께 육성하겠다”
며 “향후 개발되는 항만에도 지속적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해 광양항 항만 경쟁력
을 국제 수준으로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흥의 경우 50여만평에
달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
극 추진하겠다고 해 참석자들로부터 박
수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주 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
사장과 조립등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발사체 관
련 기업에도 여유 있는 입주 공간을 제공



전남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차 전지와 콘텐츠 분
야 발전 가능성이 큰 광양과 순천에 기회
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농·축·수산업도
더욱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무안·함평 지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
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천200억원을 투
입해 가공 연구·개발 수출 지원을 꾀하
는 한편, 나주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을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검사 시절부
터 호남 지역과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
하며 호남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에 근무하면서 주말이
면 호남 지역 전체를 많이 둘러보고 살
았다”며 “2006년 제가 광주에서 떠날 때
대표로 전별사를 했는데, 전별사를 다
읽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많은 정을 갖
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해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

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
교육감과 함께 전남을 바꾸고 크게 발
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김영록 지사의
건의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남도에
서 어느 대학으로 할 지 결정하면 추진
하겠다”고 답해 기대감을 갖게 했다.
/김진수기자

광주·전남서도 ‘조국혁신당’ 돌풍 불까

Ⓧ총선 D-26

광주 찾은 조국 “더 단호·강력하게尹정권 맞설 것”
“도태우 5·18 특별법 위반 고발...민주당 합당 안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조국혁신당 바람
이 심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따른 실망감에 유권자들이 또
다른 대안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
서 지지율이 급등, 돌풍 가능성까지 제
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도함,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와 실망, 울분을 기존 정치권이 못
하는 조국혁신당이 실제 행동하는 점,
시민들의 가슴 속 이야기를 내뱉은 점
등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높은 지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규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해민 IT연
구원, 배수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

정관,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은우근 조국혁신당 광주시장 위원장이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지지율이라는 게 항상 등
락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신나서 머리 쳐들
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
로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행군을 진행할 생각”이라
며 “국민들의 마음이 ‘보다더 확실하게
싸워봐라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과 맞설 생각”이
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를 총선 후보(대구
중·남구)로 공천한 것에 대해 조 대표는
“도 후보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
 biệt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며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
했다”며 “후예가 아니라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다 운운하면서 5·18 북
한 개입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
한 자의 공천을 강행할 수 있는가”라
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7공
화국 헌법전문에 5·18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민주
당과 손잡고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과 연대는 하되
합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의 강령·비전·정책·가치
가 민주당보다 진보·개혁적이고, 특히

국회법상 좋은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포함돼야 하는
점 등 2개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전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조 대표
는 “민생 토론회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이라며 “만약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면 아마 탄핵됐을 것이다. 정치적 중
립 위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2면에 계속 /박선강·장은정기자

Today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부족	6면
키워드로 보는 ‘명화’ 이야기	14면
KIA 네일 “내일은 더 진일보”	16면

제24회 광주매일신문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2024. 3. 30(토) 오전 8시 30분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봄 기운을 느끼면서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4년 3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40분
집결장소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또는 모바일 접수
참가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참가비	무료

걷기대회 모바일접수

주최 광주광역시육상연맹

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협찬 조선대학교병원 해양에너지